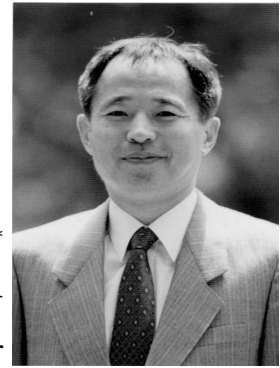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 및 기업규모별 발전 특성 및 시사점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grh@swu.ac.kr

I. 문제 제기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전통적 가설은 호프만 공업구조와 클라크 산업구조이다. 호프만(W.G. Hoffman)은 1957년 모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과정에서 소비재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자본재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법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공업생산구조에 의해 경제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리고 클라크(C. Clark)는 1957년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벨경제학의 세번째 수상자인 쿠즈네츠(S. Kuznets)는 1957년 그리고 체너리(H.B. Chenery)는 1968년 실증분석을 통해 클라크의 산업구조 가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경제학 박사
- “은행주도 자본유입 구성변화, 금융위기와 금융감독 취약성”,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과제”, “금융시장의 실패와 정책금융의 역할”, “자동차 부품수급구조 안정화 방안”, “자동차 산업의 장기근로제한과 1,2차 협력업체 충격과 극복 방안”, “대기업 성장의 협력업체 파급효과” 등

여주었다.

한국의 경제성장 원천으로 학자들마다 진단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서비스 산업을 성장 원동력으로 강조하는 학자들은 경제문헌에서 쿠즈네츠와 체너리의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비중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의 실물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학자들은 제조업과 제조업 연관 서비스업이 한국경제 미래 성장 원동력이고 고용창출의 원천이며, 기타 산업에서 한국경제를 끌고 가는 기관차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제조업은 서비스산업에 비해 그 연관효과가 커서, 제조업이 커지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업도 자연스럽게 발달하여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기회가 많아진다. 특히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건전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제조업의 바탕 위에서 금융업, 서비스 산업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경제발전이론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는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금융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의 현황 그리고 그 규모의 발전특성을 분석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제조업의 중소기업 규모 및 그 발전 현황을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산업중분류에서 제조업만을 선정하여, 2010년 기준으로 각 업종별 서울 지역에서 비중을 분석하여 서울시 제조업의 업종별 특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규모 및 발전 과정의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게 된다.

II. 제조업의 중소기업 규모 및 그 발전 현황

기업 규모의 변화 추이는 기업이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도 중요하다. 기업 규모에서 작은 기업이 중요성, 즉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는 것은 작은 기업이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지 않다(Small is not beautiful)’ 라는 반대 가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작은 기업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창업기업이며, 기존 작은 기업들이 아니다. 기존 작은 기업들은 영원히 작은 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여, 단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저수지가 무너지면 그 피해를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듯이,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존에만 관심을 갖는 기업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이 정신으로 도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밀려 폐업을 하게 되므로, 보존하려면 오히려 더 창업 정신을 발휘하여 변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저수지 역할로 보존만 하겠다고 고집하는 기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기업의 창업, 기존 기업의 성장 그리고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업 규모 및 그 발전 방향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잘 산다는 것은 생산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의 역동성이 넘치는 곳이므로, 기업 진화의 연구결과는 국가 정책 및 지역 정책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둘째,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파급되면서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기업규모 분포 특성을 보면, EU 중소기업 기준인 250명 미만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특히 마이크로 기업(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지배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유럽 금융위기에서도 건전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을 보면, 마이크로 기업이 드물지만 그리스에서는 너무 많다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력을 축적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제조업도 창업 단계에서는 많은 경우 소상공인으로 출발하지만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업규모가 성장해 가면 그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잘 사는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최근 유럽 경제 진단에서 강력한 메시지로 등장한 ‘작은 것이 아름답지 않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규모 변화는 그 지역 및 나라의 미래 경제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Economist(2012)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작은 기업들을 옹호하는 것이 영특한 정치이다. 그러나 소기업에 대한 맹목적 비호는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다. 일

반적으로 대기업이 소기업 보다 더 생산적이며,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소기업이 지배적인 경제는 활기가 없고 경제성과도 부진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표 1>에서 제조업의 규모변화는 한국경제 및 서울시의 미래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및 서울의 제조업체 수 추이를 보면,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기업성장이론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표 1> 전국 및 서울의 제조업체 수 추이

		2007	2008	2009	2010
전체	전국	331,050	318,364	318,638	325,082
	서울	61,672	56,193	54,898	53,895
	비중(서울/전국)(%)	18.63	17.65	17.23	16.58
소상공인	전국	269,330	260,015	261,162	263,194
	서울	55,188	50,953	49,785	48,794
	비중(서울/전국)(%)	20.49	19.60	19.06	18.54
소기업	전국	322,369	309,488	309,811	315,570
	서울	61,062	55,741	54,459	53,439
	비중(서울/전국)(%)	18.94	18.01	17.58	16.93
중기업	전국	8,079	8,252	8,243	8,915
	서울	568	415	405	427
	비중(서울/전국)(%)	7.03	5.03	4.91	4.79
중소기업	전국	330,448	317,740	318,054	324,485
	서울	61,630	56,156	54,864	53,866
	비중(서울/전국)(%)	18.65	17.67	17.25	16.60
대기업	전국	602	624	584	597
	서울	42	37	34	29
	비중(서울/전국)(%)	6.98	5.93	5.82	4.86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각 연도

먼저 전국적으로 보면,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07 ~ 2009년까지 감소 추이였다가 2010년에 그 추이가 반전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전국 제조업체 수에서 서울 소재 제조업체의 비중도 2007년 18.63%에서 2010년에는 16.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둘째,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에서 전국적으로는 2007년 ~ 2008년 사이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서울에서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그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 수에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49%에서 2010년 18.5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셋째, 10인 이상 49인 미만 소기업에서도 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서울 지역 비중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넷째,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기업 수가 서울 지역에서는 감소하다가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전국 중기업에서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서울 소재 기업 업체 수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이 전체 중기업 증가율 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전국 및 서울에서 감소하다가 2010년에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그 증가율이 전국 증가율 보다 낮아 서울 지역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2007년 대비 2010년 대기업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표 1>의 통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Small is not beautiful’ 을 벗어나는 기업규모 성장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대기업의 수는 2007년 보다 2010년에 더 적고,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의 수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증가하고 있다. 단지, 중기업에서 전국적으로 그 수가 2007년 8,079개에서 2010년 8,915개로 증가했을 뿐이다.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의 증가율을 요약한 <표 2>에서 전체 제조업 수는 전국적으로는 2009년 이후 증가하는 추이이지만, 서울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기업에서만 서울지역 2010년 증가율이 전년 대비 5.43%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2008년부터 제조업에서 대기업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제조업 수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제조업 육성은 중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성장 이론 그리고 서울 및 국가의 미래 관점에서 보면 서울 시장, 서울지역 국회의원, 시위원 및 기초의원들은 대기업을 비난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표 2> 전국 및 서울의 제조업체 수 증가율 비교

(전년대비 증가율, %)

		2008	2009	2010
전체	전국	-3.83	0.09	2.02
	서울	-8.88	-2.30	-1.83
소상공인	전국	-3.46	0.44	0.78
	서울	-7.67	-2.29	-1.99
소기업	전국	-4.00	0.10	1.86
	서울	-8.71	-2.30	-1.87
중기업	전국	2.14	-0.11	8.15
	서울	-26.94	-2.41	5.43
중소기업	전국	-3.85	0.10	2.02
	서울	-8.88	-2.30	-1.82
대기업	전국	3.65	-6.41	2.23
	서울	-11.90	-8.11	-14.71

III. 산업중분류별 전국 및 서울 지역 제조업의 현황

<표 2>에서 서울 지역에서 제조업은 2010년부터 중기업 규모에서만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의 제조업에서 중기업 수가 증가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산업별 중분류를 이용해 2010년 기준 전국 제조업 사업체 수 대비 서울지역 제조업체 수 비중을 조사하였다.

<표 3>에서 서울지역에서 중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6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의복·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서는 전체에서 서울 비중이 55%이면서, 서울 소재 중기업 비중은 53.6%이다. 그리고 서울소재 대기업 비중이 88%로 지배적 위치를 갖추고 있다.

둘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전체에서 서울 비중이 41.8%이며, 서울 소재 중기업 비중은 31.9%이다. 셋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전체에서 서울 비중 37.3%이면서, 서울 소재 중기업 비중이 8.8%이지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서울 비중이 높다.

넷째, 의복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은 전체에서 서울 비중이 23.3%이며, 중기업 비중이 4.0%로 낮지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비중이 각각 26.3%, 23.7%로 상대적으로 높다.

<표 3> 2010년 기준 전국 제조업 사업체 수 대비 서울 지역 제조업체 수 비중

구분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소계	16.6	18.5	16.9	4.8	16.6	4.9
식료품 제조업	10.6	11.2	107.	1.1	10.6	3.0
음료 제조업	2.7	2.2	2.7	1.8	2.7	0.0
담배 제조업	7.7	0.0	25.0	0.0	8.3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3.3	26.3	23.7	4.0	23.3	0.0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55.0	54.5	55.0	53.6	55.0	88.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7.3	39.7	37.8	8.8	37.3	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6.2	7.1	6.2	0.0	6.2	0.0
펄프 및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5	17.4	14.9	4.4	14.5	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8	42.0	41.8	31.9	41.8	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	2.9	2.2	0.0	2.2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4.7	5.7	4.9	2.1	4.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4	12.9	10.1	2.2	8.4	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9.0	7.3	1.4	7.1	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9	4.6	3.9	2.3	3.9	0.0
1차 금속 제조업	6.6	9.9	7.2	0.2	6.7	0.0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0.5	12.1	10.6	1.6	10.5	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5	16.9	15.3	9.2	14.7	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0.2	21.5	20.5	11.3	20.2	12.5
전기장비 제조업	13.8	15.6	14.1	4.9	13.8	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	11.8	10.1	2.6	9.8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	4.2	2.9	0.4	2.6	0.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0	4.1	2.5	0.0	2.0	0.0
가구 제조업	6.9	7.6	7.0	2.0	6.9	0.0
기타 제품 제조업	27.2	27.3	27.3	13.2	27.2	0.0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2010)

다섯째,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서 서울 비중은 20.2%이고 서울 소재 중기업 비중은 11.3%로, 유명 병원이 서울에 몰려 있어, 서울에서는 전망이 좋은 제조업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전체에서 서울 비중이 27.2%이고 중기업의 비중은 13.2%이다.

IV. 규모별 발전 특성으로 본 시사점

<표 1>의 통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Small is not beautiful’ 을 벗어나는 기업규모 성장이 2009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대기업의 수는 2007년보다 2010년에 더 적지만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의 수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증가하고 있다. 중기업에서 전국적으로 그 수가 2007년 8,079개에서 2010년 8,915개로 증가했다. 2009년 기준으로 증가율로 보면 중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순이다.

Economist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인은 중소기업을 옹호하고 치켜세우는 것이 대중에게서 표를 얻는데 효과적이다. 현실적으로 유럽에서는 25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서 경영성과가 좋아 경제적 기여도가 높지만, 정치인들의 중소기업 지나친 옹호와 대기업의 비난은 현실의 왜곡이지만 대중인기 영합에는 적절한 정치 행위이다.

한국에서도 <표 1>과 <표 2>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기업 및 대기업의 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대기를 비난한다면 정치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득표율에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틀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기업이 성장하여 사업체 수의 규모의 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두운 징조이다.

참고문헌

- Economist(2012), "Small is not beautiful", March 3rd
- 홍순영, 이종욱, 송치영(2007),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구조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 연도